

6. 함께 사는 세상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Q4-① 영화 속 세상 읽기: 논설문**

- <다크나이트> 속 캐릭터가 추구하는 정의, 공평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 글자 포인트 11 / 최소 1장 반 이상 작성

10학년 D반 이름: 최준용

몇 년 전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다. 이를 보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깊은 토론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의를 행하자.”, “정의를 행하자.”,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등의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고 선거철마다 정치인들도 단골로 언급하지만, 여기서의 정의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배트맨 시리즈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다크나이트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정의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이다. 영화는 단순히 히어로와 악당의 이야기를 넘어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이 각자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무슨 행동을 하며, 그 결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인 배트맨은 얼핏 보기에는 권선징악을 실천하는 전형적인 정의의 사도지만, 그가 행하는 정의는 명백한 위법이고 범죄이다. 영화에서 악당 조커는 배트맨에게 “너도 나 같은 별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제 무기를 만들고 법적 처벌이 아닌 사적 제재를 가하는 모습은 시민을 지키는 경찰보다는 오히려 그의 적인 갱단과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배트맨은 범인을 잡기 위해 시민들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체포된 조커의 실토를 받으려고 그를 폭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찰, 검찰, 판사가 모두 부패한 고담시에서 배트맨의 활약은 범죄율을 감소시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던 여러 국가에서 치안과 안정을 목적으로 탄생한 독재국가의 사례와 같이 배트맨에게서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오랜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누가 보기에든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손쉽게 사람을 죽이고,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즐기기까지 한다. 하지만 악당으로만 보이는 조커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정의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혼란을 만들고 기존의 가치를 뒤엎으면서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한다. 조커의 의도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는데, 병원 인질극에서 광대 마스크의 테러범은 입이 막힌 채 총과 함께 묶여 있는 죄 없는 환자들이었고, 인질로 보였던 의사들이 오히려 범인이었다. 그리고 각각 죄수와 일반 시민들이 탄 배 두 척에 폭탄을 설치하고 서로에게 상대편 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를 준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조커는 결국 죄수와 일반 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고 단지 상황적 논리가 돌을 갈라놓았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비 덴트는 다크나이트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그가 추구하는 정의는 개인과 사회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올바른 도리이다. 검사라는 공적인 신분과 투철한 도덕심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체포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하비 덴트를 보며, 배트맨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하지만 애인인 레이첼의 죽음을 계기로 하비 덴트는 사람의 생사를 비롯해 모든 일을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악당 투페이스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애인의 불운한 죽음조차 막지 못했다는 실망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비 덴트는 처음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차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오히려 자신만의 정의관에 빠져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 역사 속 인물들을 연상시킨다.

다크나이트를 보고 정의와 공정, 공평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라고 말했듯 정의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교적 명확한 정의의 속성으로 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공의 책임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심을 들고 싶다. 공공의 책임은 개인의 지위, 신분, 재산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하며 이것이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하비 덴트의 시도는 고담시의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평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사회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려는 조커나 동전의 양면을 던져 의사결정을 하는 투페이스는 기계적인 공평을 추구하는 위험성도 잘 보여준다. 결국 법과 질서에 기반한 공정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공평,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 실현되는 정의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한다.